

친구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어지는 외국생활

땡땡따수

미얀마에는 한국 드라마와 방송이 많이 방영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케이팝을 정말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양곤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원래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미얀마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와 쿠데타 때문에 한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절차는 까다로웠다. 그 당시 미얀마 사람들은 비자 발급도 어려워 쉽게 외국으로 떠날 수 없었다. 2019년 이후부터 미얀마에서 한동안 한국어 능력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나는 한국어 전공자로서 토픽(TOPIK) 시험에 매년 응시한 결과가 있었다. 평소에 조금씩 준비한 결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야만 했다. 쿠데타 시기에 미얀마에서 자녀를 공부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너도나도 자녀를 유학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비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대학교의 배려로 입학 허가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다. 비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기 전까지 매일 울기도 하



고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한국행이 결정되었다.

미얀마에서 유학을 가려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보다 유학을 준비하는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략 25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중간에 30분 정도만 쉬고 하루 종일 수업을 했다. 그 덕분에 유학 초기 비용은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 대학에서 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했다. 편입 형태로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짧은 기간 안에 졸업해야 해서 너무 어려운 전공은 피했다. 미얀마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옷을 판매한 한 경험도 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다. 얼마 전 1인 미디어 수업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과 브이로그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학과의 장점은 영상 작업을 함께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난히 미얀마에서 온 학생이 많다. 나와 친구를 시작으로 다른 미얀마 출신 학생들이 연달아 입학하면서 지금은 같은 학과에 미얀마 학생이 6명이나 있다. 교수님들은 갑자기 학과에 미얀마 친구들이 늘어나서 놀라워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어울리면서 기숙사에 미얀마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이렇게 친한 친구가 모두 미얀마 출신이다 보니 한국인 친구

를 사귄 필요성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 동아리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서 바깥에서 만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국에서 미얀마 친구들과 생활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얀마 출신이라는 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에도 관심이 생겼다. 내 특기인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활용해서 미얀마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대학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서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인천대학교에 다니는 미얀마 학생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외국인 학생과 상담을 하는 근로학생으로 일하기도 했다. 졸업을 앞두고 치과 의원 홍보 업무에 지원해서 일하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의 SNS 계정을 관리하고 마케팅 게시물을 올리는 일을 담당한다. 미디어학과인 전공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미래에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는 자격이 미얀마 남성에게만 주어졌다면, 올해부터 여성에게도 유학이 아닌 취업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점차 변화한다면,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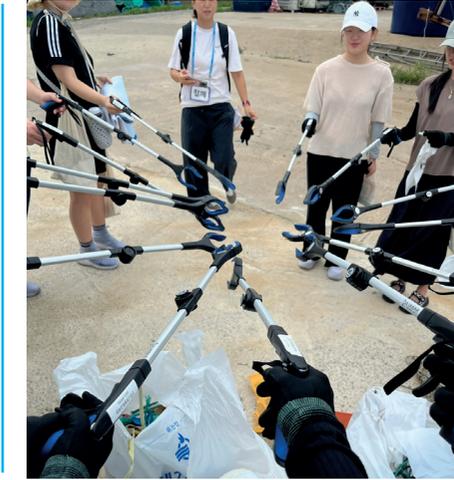
인천대 외국인 학생 동아리 대상

인천대학교 외국인 동아리에서 팀장을 맡았을 때 우리 팀이 대상을 받았던 모습을 기록했다. 여러 나라 친구들을 섭외하고 각 나라의 음식을 먹어 보거나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다국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외국인 친구들이 국적은 달라도 한국어로 소통하고 공감대가 많으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더 재미있어지는 외국생활

미얀마 친구들과 한복 체험을 하는 모습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에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신났던 기억이 난다. 사진에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미얀마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20대 후반이지만 친구들끼리 모여 새로운 걸 도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논다. 친구들을 만날 때 제일 편하고 행복한 나의 즐거움을 담은 장면이다.



“쓰담쓰담” 봉사활동

인천대학교 사회봉사 센터에서 진행한 평화교육 “쓰담쓰담” 프로그램에서 찍은 사진이다. 올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외국인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친구들과의 기숙사생활

기숙사에서 미얀마 친구들과 모여서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다. 유학 생활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건 고향 친구들이다.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먼저 졸업해 자취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미얀마 친구들과 지내던 시간이 그리울 것 같다.



갈 때는 가벼웠지만
돌아올 때 손이 무거웠던
한국 문화 체험

외국인 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고추장을 만들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고추장이 너무 맛있어서 기뻐다. 아르바이트와 학교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대학교에서 마련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이 고추장을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니 보람이 느껴졌다.